## "여순사건 진상규명 더 속도 내야"

특별법 통과 1년 29일 '완전한 과거사 해결…' 포럼 법 제정 의미, 희생자·유가족 명예회복 등 논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아 법제정 의의 등을 되새기는 포럼이 열린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과 전남동부권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 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 안 총 8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 등 6천 필의졌으니 국회 분칙들 급시 돗ᆻ더. 21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행안위·법사위 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법 안이 통과됐다. 여야를 넘어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 는 법안으로 평가됐다.

이번 포럼은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의 역사적 의미와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되새기고, 법 시행 이후 진행 상황 점검과 앞으로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하나된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 완수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열띤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여순사건유족회,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여순



사건 관련 다양한 전 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향후입법 개정을 위한 의견 등을 모

소병철 의원은 "지 난 1월부터 신고접수 가 실시되고 있으나 고령의 희생자·유가

족을 고려해서라도 성과나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해 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73년의 피맺힌 고통과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이 억울함이 풀리도록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가정 내 마을 무선 방송 수신기 설치

2022, 6, 23, (목) 11:30

마리면 마을무선방충장치 역내 설치시갑 협약식

보성군 미력면 ⇒ 한수원(주)보성강수력발전소

#### 보성 미력면-한수원 업무협약

보성군 미력면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 보 성강수력발전소와 '마을무선방송장치 댁내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지역과 상생 협력을 위해 매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옥외 스피커를 통해 마을 전 체에 송출되던 마을방송을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 도록 가정 내 마을 방송 수신기를 설치한다. 한국 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는에서는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력면은 이번 사업비로 화방2·3리와 용정2·3리 150가구에 가정용 방송 수신기를 설치할 예정이 며, 점진적으로 '마을무선방송장치 댁내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신자 보성군 미력면장은 "이번 마을무선방송 장치 댁내 설치사업을 통해 마을방송 청취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장직인수위, 광양세무서 유치 힘 모은다

#### 정인화 당선자. 민생 공약 1호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박용근)가 정인 화 광양시장 당선자 민생공약 1호인 '광양세무서'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정인화 당선자와 순천세 무서장이 만나 '광양세무서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노이를 펼쳤다

순천세무서장은 광양세무서 신축 관련 비축토지 매입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설립된 광양지서가 명실상부한 광양세무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광양세무서 유치는 전라권 제1의 경제도시로서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기업 중심 의 세무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정인화 당선자의 민생 1호 핵심 공약이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주요 기관단체가 함께 광 양세무서 설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인화 당선자는 "민생 공약 1호인 광양세무서 유치에 순천세무서도 팔을 걷고 유치 활동에 총력 을 다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시가 협조할 사항을 잘 준비해 1호 공약이 가장 먼저 달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면담에 이어 1분과 위원회(민생·기획)는 광양세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무서 유치와 관련된 광양시청 관계부서인 세정과, 택지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부지 확보, 행안부 조직 승인 등 광양세무서 유치가 연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정인화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행안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광양세무서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할 예정이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에 이어 광양세무서가 유치

되면 광양시는 전라권 제1의 경제도시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경제 주권을 갖는 도시로 자리매김하 게 된다.

한편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2020년 4월 중마동에 개청해 조사업무와 납세자보호업무를 제외한 증명발급민원, 부가가치세, 종합·양도·법인소득세 세원 관리 등 4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 조례호수공원서 29일 '다시 다(多) 함께 콘서트'

순천시가 29일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다시 다(多)함께 콘서트' 를 개최하다

이번 공연은 콘서트 중간 중간에 환상의 마술쇼가 연출돼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로 힐링의 콘서트가 될 예정이다.

공연은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유튜 브 '순천시문화예술회관 LIVE'채널을 통해 실시 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매월 마지막 주 수 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 공 연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 27일 오후 5시 순천만국가정원, 8월 31일 오후 4시 순천드라마촬영장, 9월 28일 오후 3시 순천여자고등학교, 10월 26일 오후 3시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클래식·대중가요 공연과 현대미술과 음악, 마술을 접목한 콜라보레이션 공연 등을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쳐있는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예술가들 의 참여로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 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구례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338억 확보

구례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 사업비 338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례군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231억원 등 총 사업비 33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이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이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농림

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고흥군, 지방교부세 5427억 확보…현안사업 탄력

#### 지난해보다 51%↑ 역대 최대

고흥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지방교부세 5400여 억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

고흥군은 올해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1830 억원(50.9%) 증가한 54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첫 시작 해인 2018년 3477억 원 보다 195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 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내

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 고보조금,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 제한없이 지자 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고흥 군 세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군민 행복 실현과 민생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군정 살림살이에 쓰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민선 8기 에 요긴한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물론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